

# 취업여성의 부모역할 경험이 직업만족과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부부관계 스트레스의 중재효과\*

Effects of Parenting Experiences on Job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Employed Women: Moderating Effects of Marital Stress

중앙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부 교수 이형실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Associate prof.: Lee, Hyongsil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관련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enting on job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employed women, with moderating effects of marital stress. The present study was based on a sample of 258 full-time employed women aged 30-49 in dual-earner families. The effects of parenting experiences on job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examined separately for women with low and high marital stress. Both parenting rewards and cost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in women with high marital stress. For women with low marital stress, parenting rewards and costs did not predict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women with high marital stress, parenting reward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cost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In contrast, only parenting costs were a good predictor of job satisfaction for women with high marital stress. In conclusion, the effects of parenting experiences on job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mediated by the level of marital stress in employed women.

◆ 주요어: 부모역할, 부부관계, 직업만족, 심리적 복지, 취업여성

\* 이 논문은 2001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I. 서 론

맞벌이 부부가족에서 기혼 취업여성은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을 양립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 한다. 취업여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Trone, Russell, & Cooper, 1992; Voydanoff, 1988; Williams & Alliger, 1994) 취업여성이 수행하는 다중역할로 인한 역할갈등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므로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생활과 직업생활 경험간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 가족생활과 직업생활간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직업생활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왔다. 또한 기혼 취업여성에 관한 연구의 경우, 취업을 하는 것이 자녀 및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어 왔다. 즉, 취업여성의 직업생활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가족생활 경험이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부모역할이 직업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별로 없다. 기혼 취업여성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취업여성의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직업생활의 경험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많은 연구들이(Barnett, Marshall, Raudenbush, & Brennan, 1993; Repetti, Matthews, & Waldron, 1989; Wethington & Kessler, 1989) 취업여성의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역할 또는 부부관계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직업생활과 관련된 변수들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규명함으로써 기혼 취업여성이 갖는 역할들을 분리해서 살펴보았다.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경험, 그리고 개인적 기능성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파악한 연구가 부족하다.

부모역할의 경험을 연구해온 연구자들은 부모역할과 관련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취업여성은 자녀 양육에 더 많이 관여하므로, 결과적으로 부모역할의 심리적 부담과 이득 모두 얻을 수 있다. 개인이 역할을 수행

할 때 경험하는 만족이나 긴장 같은 역할 경험의 질적인 측면은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Baruch, Biener, & Barnett, 1987).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경험을 더욱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부모역할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만일 부모역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심리적 복지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면, 부모역할의 보상을 강화하고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부부관계와 부모역할은 기혼 취업여성에게 특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가족역할이며, 부부관계의 질은 부모역할 수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Erel & Burman, 1995). 또한 부모됨은 남성과 여성의 생활의 구조와 조직을 변화시켜, 배우자로부터 얻는 정서적 지원과 부부관계 만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또 심리적 스트레스를 높인다(Bird, 1997). 따라서 부모역할과 부부관계는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부모역할이 직업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부부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높을 때, 부모역할의 경험이 직업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강화될 수 있다. 부모역할 경험이 직업생활 경험과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중재효과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취업여성의 부모역할 경험이 직업만족과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부관계 스트레스의 중재효과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취업여성의 부부관계 스트레스 집단에 따라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이 직업만족과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취업여성의 가족생활과 직업생활, 개인적 기능성간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II. 관련연구 고찰

### 1. 부부관계와 부모역할 경험간 관련성

부부관계와 부모역할간의 관계는 많은 연구들에

의하여 규명되었다. 378명의 중국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Shek(1998)의 연구에서 결혼의 질 수준은 부모자녀관계의 질 수준과 관련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부관계가 부모역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Easterbrooks & Emde, 1988; Erel & Burman, 1995). 부부관계가 자녀의 존재보다 선행하고, 부부관계는 부부 개인의 정서상태에 영향을 주어 이는 부모역할의 질과 부모자녀관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 배우자로부터의 정서적, 도구적 지원은 부모역할과 부모자녀관계 향상과 관련되었다(Belsky, 1990). 또한 부부간 갈등은 부모역할에서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ummings & Davies, 1994). 반면에, Brody, Pellegrini와 Sigel(1986)은 6-8세 자녀를 가진 부모의 부부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더 긍정적인 패턴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한편, 부모역할경험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의 연구(Rogers & White, 1998)는 1200명의 부모로부터의 장기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결혼만족과 부모역할 만족간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한 역할에서의 만족과 보상 느낌은 다른 역할에 대한 만족으로 전이된다. 부부관계는 부모역할과 관련되므로 부모역할이 직업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 부모역할과 직업생활 경험

가족과 직업생활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직업생활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가족생활이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다. Bolger, DeLongis, Kessler와 Wethington(1989)은 가족생활에 미치는 직업생활의 영향이 직업생활에 미치는 가족생활의 영향보다 더 크다고 하였다. 한편, 가족과 직업역할의 침투성의 방향에서 남성과 여성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 남성에서는 가족의 요구보다 일이 더 중요하며 여성에서는 일보다는 가족의 요구가 우선이라고 가정한다면, 남성의 경우 직업역할의 요구는 가족생활을 더 방해하며 여성에서 가족의 요구는 직업생활을 더 방해한다

는 것이다. 한편, 최근 연구에 의하면(Tenbrunsel, Brett, Maoz, Stroh, & Reilly, 1995), 남성집단에서 직업과 가족생활간의 관계는 상호적이었으나, 여성집단에서는 가족생활이 직업생활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oydanoff(1990)는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이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생활 만족과 직업생활 만족간에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Kinnunen, Gerris와 Vermulst(1996)의 연구에서 부모역할 만족과 직업만족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걱정은 취업여성의 직업역할 물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힌 연구(O'Neil & Greenberger, 1994)도 있다. 이 연구들을 통하여 부모역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직업생활 경험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된다.

이와 같은 관련연구들을 볼 때,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역할 경험과 직업생활 경험간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부모역할에서 경험하는 보상과 비용이 직업생활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는 없다. 따라서 취업여성의 부모역할 보상과 비용이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와 더불어 부부관계의 중재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3. 부모역할 경험과 심리적 복지

부모 역할과 심리적 복지간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 역할이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심리적 복지에 대한 부모역할의 영향은 부정적이라는 결과, 그리고 부모역할은 심리적 복지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밝히고 있어 일관적이지 않다. 먼저, 부모역할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Barnett(1997)의 연구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역할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우울감을 예측하는 요인이었다(Windle & Dumenci, 1997).

자녀를 갖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에 대

한 책임, 특히 취업여성에게는 자녀양육을 맡기는 어려움 같은 스트레스에의 노출을 증가시킨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초래 해서, 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하였다(Ross, 1995).

부모역할의 주된 책임은 심리적 스트레스의 증가와 관련된다. 대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부모역 할을 수행한다. 맞벌이 부부가족에서 조차 여성은 남성보다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따라서 취업여성은 가사일과 자녀양육 역할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남편의 자녀양육에의 참여는 취업여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Ross & Mirowsky, 1988).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복지에 대한 부모역할의 긍정적인 영향도 보고된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녀를 가진 부모는 삶의 의미 수준이 높았다(Umberson & Gove, 1989). 또한 부모역할 만족은 부모의 심리적 복지와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Umberson & Williams, 1993). 반면에 부모역할이 심리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밝힌 연구들도(Bird, 1997; McLanahan & Adams, 1989)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역할의 긍정적 경험과 부모역할의 부담·책임이 상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며 또 한편으로는 긴장과 부담감을 경험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사회교환이론에 의하면 보상이란 개인에게 주어지는 만족감, 기쁨 등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서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인 것을 포함한다(Sabatelli & Shehan, 1993). 비용은 개인이 경험하는 긴장이나 부담감, 스트레스 같이 개인이 싫어하는 감정, 관계, 상호작용, 주변환경을 포함한다.

우리 나라 기혼 취업여성의 경우 부모역할의 보상이 많을수록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만족도나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고(이희정·이숙현, 1995) 우울증과 심

리적 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Umberson & Gove, 1989). 한편, 부모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므로 기혼 취업여성의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 또 이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윤옥, 1993). 신기영(1999)의 연구에서도 부모역할의 보상이 높고 비용이 낮을수록 직종에 상관없이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취업여성의 부모역할과 심리적 복지의 관련성만을 살펴보았고 그 관련성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역할은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 측면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중재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취업여성의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이 직업만족과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취업여성의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부모역할 보상, 부모역할 비용, 직업만족, 심리적 복지의 차이가 있는가?
2.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취업여성의 부모역할 보상과 부모역할 비용은 직업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취업여성의 부모역할 보상과 부모역할 비용은 심리적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족의 기혼 취업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임의 표집을 통해 서울시 및 인접 신도시에 있는 2개 중학교의 학부모 및 직장인을 대상으

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총 400부를 배포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54부이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취업여성의 평균 연령은 37.9세이었으며 30대가 163명(64.2%), 40대가 91명(35.8%)으로 구성되었다. 취업여성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40.6%, 고졸이 35.4%이었다. 평균 결혼기간은 12.5년, 자녀수는 평균 2.0명이었고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98만원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직업은 전문직이 25.6%, 사무직이 23.2%, 자영업이 16.5%, 서비스직과 영업직이 16.5%, 생산직이 6.7%이었다.

### 3. 조사도구

부부관계 스트레스 척도는 신기영(1999)의 연구 등을 참고로 하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범주를 가졌다. 응답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 스트레스가 높음을 나타낸다. Cronbach  $\alpha$ 로 측정한 신뢰도는 .67이었다.

부모역할 보상은 신기영(1999)의 연구 등을 참고로 하여 구성한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역할의 보상을 나타내는 문항은 부모역할에서 얻는 애정, 즐거움, 의미, 성취 등을 포함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형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78이었다.

부모역할 비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신기영, 1999; Marshall & Barnett, 1993)를 토대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역할 비용을 나타내는 문항은 부모역할로 인한 시간적 제약, 어려움, 부담 등을 포함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형 척도로 측정되었다. 부모역할 비용 척도의 신뢰도는 .76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 척도는 보수, 승진, 직업환경,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과 더불어 직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

항은 5점 Likert 형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25점까지이다. 직업만족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8이었다.

심리적 복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형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Cronbach  $\alpha$ 로 측정한 심리적 복지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0이었다.

### 4.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취업여성의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부모역할의 보상, 부모역할의 비용, 직업만족,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하였다.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부모역할의 보상, 부모역할의 비용, 직업만족, 심리적 복지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또한 취업여성의 부모역할 보상과 비용이 직업만족과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차이

취업여성의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부모역할 보상과 부모역할 비용, 직업만족, 심리적 복지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분석을 사용하였다(표 1). 부부관계 스트레스 점수의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하여 12점미만인 집단과 12점이상인 집단을 각각 부부관계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 $n=121$ )과 높은 집단( $n=133$ )으로 분류하였다. 부부관계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부부관계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부

〈표 1〉 변수들의 평균점수

	부부관계 스트레스 ↓			부부관계 스트레스 ↑			t
	M	SD	범위	M	SD	범위	
부모역할 보상	21.73	2.61	13-25	20.91	2.90	14-25	2.37*
부모역할 비용	13.86	3.71	5-24	14.80	3.72	5-23	- 2.01*
직업만족	16.93	2.96	9-25	15.78	2.63	7-21	3.15**
심리적 복지	38.50	5.94	18-50	33.58	7.21	10-50	5.85***

\*p &lt; .05 \*\*p &lt; .01 \*\*\*p &lt; .001

〈표 2〉 변수간 상관관계

	1	2	3	4
1. 부모역할 보상	1.00	- .34***	.03	.14
2. 부모역할 비용	- .21***	1.00	- .18*	- .08
3. 직업만족	.09	- .33***	1.00	- .22**
4. 심리적 복지	.23**	- .27**	- .35***	1.00

대각선 위는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의 상관관계, 대각선 아래는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p &lt; .05 \*\*p &lt; .01 \*\*\*p &lt; .001

부관계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보다 연령이 더 높았고 ( $t=-2.19$ ,  $p<.05$ ), 교육수준( $t=2.66$ ,  $p<.01$ )과 소득수준 ( $t=3.24$ ,  $p<.01$ )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 직업만족, 심리적 복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부관계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부부관계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 비해 부모역할의 보상과 직업만족, 심리적 복지 수준은 더 높았고 부모역할의 비용 점수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집단은 부부관계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보다 부모역할과 직업생활 측면에서 더 부정적인 경험을 하며 또한 심리적 복지 수준도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 2.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별 변수간의 상관계수(표 2)를 통하여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표 3),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상관없이 부모역할의 보상은 직업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역할의 비용은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직업만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취업여성은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부모역할의 비용을 많이 경험할수록 더 낮은 수준의 직업만족을 보고하였다.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취업여성의 경우 부모역할의 긍정적인 측면은 직업생활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부모역할의 어려움이나 부담으로 인하여 직업생활에서도 별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부모역할의 비용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모역할 경험과 직업만족간 관련성은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은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직업

〈표 3〉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이 직업만족 및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부부관계 스트레스 ↓		부부관계 스트레스 ↑	
	직업만족	심리적 복지	직업만족	심리적 복지
	$\beta$	$\beta$	$\beta$	$\beta$
부모역할 보상	-.03	.12	.02	.17*
부모역할 비용	-.19	-.04	-.35***	-.28**
R <sup>2</sup>	.02	.00	.11	.11
F	1.84	1.22	9.08***	9.24***

\* $p < .05$  \*\* $p < .01$  \*\*\* $p < .001$ 

만족 변량의 11%를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역할 경험과 직업만족간 관련성에 있어서 부부관계 스트레스의 중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검증하였다(표 3).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별 변수간의 상관계수(표 2)를 통하여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부모역할의 보상과 부모역할의 비용은 심리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취업여성은 부모역할의 보상을 많이 경험하고 부모역할의 비용을 낮게 인식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복지를 나타냈다. 반면에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은 심리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부부관계가 비교적 긍정적일 경우,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부모역할 경험에 의해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별로 긍정적이지 못할 때, 부모역할 경험은 심리적 복지와 더 강하게 관련되었다. 따라서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이 심리적 복지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부관계 스트레스의 중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은 심리적 복지 변량의 11%를 설명하였다.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부모역할의 보상에 비해 부모역할의 비용이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역할 경험이 직업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부관계 스트레스의 중재효과를 규명하였다. 즉, 취업여성의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이 직업만족과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취업여성의 부모역할 경험과 직업만족간 관련성은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부모역할의 비용을 낮게 인식하는 취업여성은 직업생활에 대해 별로 만족하지 못하였다.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상관없이 부모역할 경험 중 부모역할의 보상은 직업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취업여성의 부부관계 스트레스는 부모역할과 직업만족간 관련성에서 중재요인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취업여성의 부모역할 경험과 심리적 복지간 관련성에 있어서 부부관계 스트레스의 중재 효

과를 밝혔다. 부모역할 경험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관계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부부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은 심리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부부관계에서 보다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할 경우, 부모역할의 경험과 심리적 복지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부관계 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며 부모역할의 비용을 많이 경험하는 취업여성이 직업생활 경험과 심리적 복지면에서 취약한 집단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취업여성의 부모역할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직업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또한 부모역할의 보상을 높이고 비용을 적게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특히 부부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취업여성 집단에서 더욱 더 요구된다. 즉, 부부관계 향상을 통해 부모역할의 경험이 직업만족과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관계의 증진과 부부간 부모역할의 공유가 취업여성이 경험하는 직업생활에 대한 만족과 심리적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여성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정서적, 도구적 지원과 더불어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의 적극적인 분담이 필요하다. 부모역할의 보상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또한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취업여성의 부모역할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족과 직업생활 경험, 개인적 기능성간 관련성이 연결되는 과정과 맥락을 파악해서 맞벌이 부부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의 경험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부모역할은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이다. 취업여성의 가족생활 경험과 직업생활 경험, 그리고 심리

적 복지는 취업여성 개인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자녀를 포함한 취업여성의 가족, 그리고 직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여성의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경험, 개인적 기능성간 관계는 앞으로 더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부부관계와 부모역할의 관련성을 좀 더 규명할 필요가 있다. 부부관계와 부모역할이 단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제 과정이 포함되는지 다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기혼 취업여성의 부모역할, 부부관계, 직업생활, 심리적 복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취업여성의 가족생활이나 직업생활의 한 영역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가족생활과 직업생활, 개인적 기능성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접수일 : 2001년 9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11월 14일

### 【참고문헌】

- 신기영(1999).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희정·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 장윤옥(199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직주부의 시간제약지각이 역할갈등과 시간제약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영자(1997). 전문직 취업 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심리적 결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339-356.
- Barnett, R.C., Marshall, N.L., Raudenbush, S.W., & Brennan, R.T.(1993). Gend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udy of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64, 794-806.
- Baruch, G.K., Biener, L., & Barnett, R.C.(1987). Women and gender in research on work and family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2, 130-136.
- Bird, C.E.(1997). Gender differences in the social and economic burdens of parent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809-823.
- Bolger, N., DeLongis, A., Kessler, R.C., & Wethington, E.(1989). The contagion of stress across multiple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75-183.
- Cummings, M.E. & Davies, P.(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The impact of family dispute and resolu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Easterbrooks, M.A. & Emde, R.N.(1998).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The role of affect in the family system. In R.A. Hinde & J. Stevenson-Hinde(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Mutual influence* (p.83-103). Oxford, England: Clarendon Press.
- Erel, O. & Burman, B.(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 108-132.
- Frone, M.R., Russell, M., & Cooper, M.L.(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 65-75.
- Kinnunen, U., Gerris, J., & Vermulst, A.(1996). Work experiences and family functioning among employed fathers with children of school age. *Family Relations* 45, 449-455.
- McLanahan, S., & Adams, J.(1989). The effects of children on adults' psychological well-being: 1957-1976. *Social Forces* 68, 124-146.
- O'Neil, R., & Greenberger, E.(1994). Patterns of commitment to work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role strai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101-118.
- Pearlin, L.L.,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Radloff, L.S.(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epetti, R.L., Matthews, K.A., & Waldron, I.(1989). Employment and women's health: Effects of paid employment on women's mental and physic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4, 1394-1401.
- Rogers, S.J. & White, L.K.(1998). Satisfaction with parenting: The role of marital happiness, family structure, and parents'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293-308.
- Ross, C.E.(1995). Reconceptualizing marital status as a continuum of social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29-140.
- Ross, C.E., & Mirowsky, J.(1988). Child care and emotional adjustment to wives' 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 127-138.
- Sabatelli, P., & Shehan, S.(1993). Exchange and resources theory. In Boss, P. G., et al(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pp. 385-413). N.Y. : Plenum Press.
- Tenbrunsel, A.E., Brett, J.M., Maoz, E., Stroh, L.K., & Reilly, A.H.(1995). Dynamic and static work-family relationship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3, 233-246.
- Umberson, D., & Gove, W.R.(1989).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0, 440-462.
- Voydanoff, P.(1988).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demands, and work-family conflict.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49-761.
- Voydanoff, P.(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09-1115.
- Wethington E., & Kessler R.C.(1989). Employment, parental responsibil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longitudinal study of marrie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 527-546.
- Williams, J.K., & Alliger, M.G.(1994). Role stressors, mood spillover, and perceptions of work-family conflict in employed parents.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 837-868.
- Windle, M., & Dumenci, L.(1997). Parental and occupational stress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dual-income couples: A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625-634.